

“利益三分”의 企業家

(주)인켈 회장 趙東植

인켈의 20년



●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우 리 인켈은 지난 '70년 3월 7일 창립 이후 금년으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유아기와 소년기를 거쳐 의젓한 청년기를 맞아 개인적으로는 물론 인켈 전가족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감회가 새롭고 의욕도 넘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일부 오디오업체들이 100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인켈도 100세 기업을 향하여 모든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회장님께서 오디오기기에 몸담게 된 동기가 있다면…….

먼 저 지나온 날들을 간단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고향은 황해도 안악인데 그곳에서 자라 농사일을 했었죠. 그런데 삶에 회의가 생겨 포목점을 했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져 월남을 했고 전쟁이 끝나고는 양복점으로 바꿨지요. 양복점이 잘되어 수출까지 생각하고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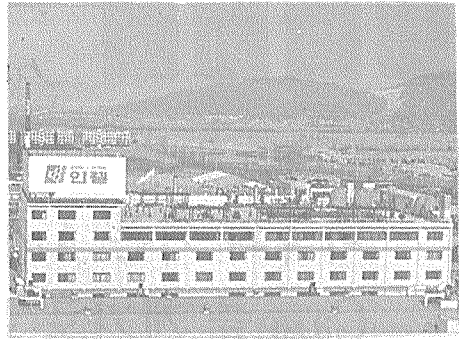
년에 일본에 들렀었지요. 당시 일본에는 전자제품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민생활이 편리해진다는 데에 착안을 하여 오디오업계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 20년전 창업 당시와 현재의 인켈을 비교하신다면…….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우선 규모로 보더라도 20년 전 당시에는 공장을 셋방살이에서 시작해서 직원은 100여명에 10만弗의 수출이 고작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수출만 1억弗이 넘는데다 제품도 오디오는 물론 카스테레오, 컴퓨터, 터미널, 모니터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에서도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적자는 한번도 보지 않았고 해마다 30% 정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 오늘의 인켈로 꾸미기까지 경영철학이 있으시다면…….

저 는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남보다 먼저 철저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굳이 경영철학이라 한다면 이익삼분 정신이라고 할까요? 기업은 어느 일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성장을 위한 축적과 종업원의 이익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이득 등이 세가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利益三分”만이 기업경영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기술개발,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을 이루지 않고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겠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분규도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종업원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사실인데 투자자에게 메리트가 없다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 창업 2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제 2 창업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제 2 창업 전략은 21세기를 앞두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 경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경영력을 확보, 강화하여 21세기에는 종합전자업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전개 방향 제시, 인력의 정예화를 통하여 정보화와 국제화를 지향하여 대대적인 기업 경영혁신을 기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인켈은 이러한 자기 변신을 사업 전개는 수평적으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향상에 집중시켜 기업성장의 내실화로 국가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해외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는데…….

현재는 주문자 상표(OEM)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는 인켈 고유의 상표 비중을 높여 인켈 이미지를 제고시킬 생각입니다.

서독의 현지법인 외에도 올해 중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음향기기업체로는 최초로 영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국제화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사업으로는 최근 인수한 미국의 킷론사를 통해 퍼스널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등의 정보통신 부문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은 우선 시장이 방대하고 그곳의 소비자들은 고급 품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그 요구를 따르지 못한다면 기업의 발전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지요.

● 끝으로 경영인과 근로자 모두의 전자공업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글썬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겠지요.

경영인과 근로자, 노·사간의 대화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인의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흔한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은 철저히 끝까지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국제경쟁시대에서 각광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운명체 의식입니다. 기업은 그 구성원인 종업원의 노력에 의해 성장하고 종업원은 기업이 성장해야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